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日) 本紙朝夕刊二十…

社說 義務教育을速히實施하라

義務教育延長案可決

一

平生文相의 提案인 義務教育期間 二年延長案은 當初 閣內에도 反對論이 잇섯스나 마침내 閣議에서 可決되어 來年度는 準備期間으로하고 來明年度부터 實施하기로 되엇다. 생각하면 明治四十年 現行 六年制의 義務教育制가 實施된 以來 約三十年, 그間 累次의 義務教育期間延長案이 提出되엇다가 流産의 悲運을 맛나고 今日 비로소 이案의 可決을 보게된것은 日本教育史上 特書大書할 劃時期的 事實이라 안흘수 업다. 이것은 從來의 爲政當局이 資本家의 利潤을 增進케하기위하야 文化的 方面을 等閑視하얏섯合에 反하야 現內閣이 超非常時的 重要政機에 處하야 國民教育을 國防 國策보다 못하지 안케 重大視한 때문이다.

二

그런데 도리켜 朝鮮의 初等教育狀況을 보면 어떠한가. 總督政治를 實施한지 이미 二十六年, 今年度로써 마치는 普校 一面一校主義의 實現에 依하야서도 就學兒童은 겨우 七十五萬을 不過하고 全學齡兒童의 比例로 보면 實로 二割程度에 未滿하다. 況그 七十五萬이란 就學兒童의 大部分은 四年制의 普通學校에 收容되어잇고, 一部는 二年制의 簡易學校, 設備不完全한 各種學校及 書堂에 收容되어잇合에랴. 當局은 明年度부터 十個年 計劃으로 普校의 一面二校制를 實施하야 現在의 約二倍의 兒童을 收容한다하지만 이것이 實現되고, 學齡兒童數가 增加되지 안는다하드래도 學齡兒童의 四割바게 收容할수 업다. 게다가 새로 設立되는 普通學校가 擧皆 四年制의 學校임에랴. 實로 朝鮮의 初等教育은 質로나 量으로 極히 幼稚한 狀態에 잇다 할것이다.

三

그러면 日本內地, 아니 朝鮮內에 잇서서의 日本內地人과 朝鮮人과의 初等教育을 왜 이가티 不均等하게 實施하는가. 當局은 그 理由를 (一)學父兄의 負擔困難과 (二)國家財政의 不足에 歸한다. 이 理論에는 全然 一理 업는바는 아니나 그러나 初等教育이 如何히 重大한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國家는 學父兄에서 多少 經濟的 困難이 伴하드래도 子女에게 就學을 命令할것이며, 國家는 初等教育費로서 相當한 豫算을 計上할것이다. 이것은 日本內地에잇서서도 그러하다. 農漁山村의 學父兄이 그 教育費負擔에 餘裕가 잇서서 義務教育의 消費를 負知할수잇다. 그러치 못하는 곳이 만타는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義務教育年限을 다시 二年이나 延長하고 그所要資金도 中央財政에서 負擔하기로 된 것은 初等教育의 重大性을 認識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朝鮮도 國家財政이 不足하야 初等教育을 實施치 못한다는 것은 理由가 되지 못하며 … 다한은 事務的 機構가 重要하다.

四

吾人은 本會를 通하야 義務教育實施의 緊急한바를 主張하며 或은 日本內地 其他 先進國家의 例를 끌어, 一朝一夕이 아니라도 이제 곳 義務教育實施에 着手할것을 總擔하며, 或은 朝鮮人의 民度 民力이 이것을 實施할時期에 達하얏슴을 論하며, 或은 義務教育財源의 捻出方法等을 指摘列擧하야 그財源의 不足치안흠것을 論한바 잇섯다. 幸히 今番 朝鮮産業經濟調査會의 結果 今後 當局의 朝鮮에 對한 産業經濟政策은 初等教育의 擴充을 必要로한다는 結論에 이르렀다 한다. 그러타면 産業經濟를 爲한 教育, 教育을 爲한 産業, 經濟의 達成으로서 分明히 好成績을 나타낼것이 아닌가.

五

日本內地의 學制와 連絡을가지고잇는 朝鮮學制는 日本內地의 小學校學制의 變改에 따라 朝鮮의 普通學校 乃至 中等學校에 變改가 잇서야 할것은 順序다. 六年制의 普通學校에 二年制의 學年을 增設할런지, 高等小學에 相當한 學校를 新로 設立할런지 그것은 今後 當局의 處置如何를 注目하라하는 바이지만, 그것보다 一層 緊急한것은 義務教育制를 實施할것이다. 日本內地의 學齡兒童이 最少限八年의 初等教育을 바더야 한다면 朝鮮人도 最少限 六年 或은 四年의 義務教育을 바들 權利를 가질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朝鮮은 上級學校 連絡을 爲主한 八年制의 初等學校制度보다도 六年制 又는 四年制의 義務教育實施가 急務다.

豫算編成과同時에 財政計畫樹立?

明年度以後의四五年에亘한 首相、藏相諒解成立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의 難關인 陸海軍 國防豫算에 對하야 廣田首相及 馬場藏相은 産業其他 一般豫算及 公債政策에 顯著한 支障을 與하지안코 圓滿히 解決할수잇다는 決意를 抱懷하고잇는데 明年度以後 國防費와 財政과의 豫測에 關하야도 兩相間에는 이미 어느程度의 妥協이 성것가러서 馬場藏相으로서는 이미 明年度豫算編成의 當初부터 大藏當局에 命하야 後年度財政計畫의 豫測을 세우고 明年度豫算의 查定에 當하여도 國防計畫을 爲始하야 後年度財政計畫의 樹立을 圖할것을 重要目標로하고 編成에 當하고잇스며 그財政政策에 表現된 左의 諸點에 對하여 보더라도 藏相이 豫算의 重點을 明年度以後四、五年에亘한 財政의 確立에 두고잇는것이 明白히 看取되여 이境遇에 依하야서는 來議會에서 後年度財政計畫槪計를 表하고도할만한 것을 어느程度로 說明하기로될 模樣이다

一、國防費에 關하야는 後年度의 繼續年限及 그金額을가장 重視하고잇슴

一、各省經費에 對하야도 經常費와 臨時費를 區別하야 그實體에 卽하야 選別하고잇는것

一、增稅其他普通歲入의 增收案에 關하야는 後年度에 亘한 豫測을 세우고 一面 强力性잇는 財源捻出方法을 講究하고잇는것

一、國民貯蓄의 程度 金融機關의 內容 行政的技術 對滿投資等 資本投資力에 關한 各種計畫을 進行하고잇는것

一、現在의 政治、經濟、産業을 準戰時財政으로보고 內政外交 經濟各般의 觀點으로 國家的 統制를 促進시키고잇는것

河川、運河에關한 制限條項廢棄

베르사이유條約第十八編第二款第四章 獨政府關係國에通牒

【伯林十四日發同盟】獨逸政府는 베르사이유條約第十八編第二款第四章國際河川에 關한 條項第二編第五款및運河에 關한 條項을 廢棄하기로決定 十四日在外使臣을 通하야 各各關係各國政府에 通牒을 手交하엿다 左、右通牒에依하야 獨逸政府는 따라、엘베 以下自國領土內通過河川에 關하야 加한制限을 一方的으로解消 國內河川에關하야 完全한 主權을確保할意를闡明하엿다

白耳義에大打擊

【브랏셀十四日發同盟】獨逸政府의 國際河川條項廢棄通告는 라인과 앙벨스港의 重要水路를가진白耳義에 對하야 大打擊임으로 政府首腦部는 愼重對策을 協議하여왓는데 아직그態度를 言明치는아니햇다 그러나 社會黨의 喉舌紙는 今回의 廢棄條項은 實質的으로 何等의 損害를 與할것이 아니오, 單純한 形式的 改正에不過하다고 楽觀하고잇다

英國과共同으로 佛政府嚴重抗議

獨의河川制限廢棄에

【巴里十四日發同盟】베르사이유條約中國際河川條項廢棄에 關한 獨逸政府의 通牒은 十四日午後四時 佛國外務省에 到着하엿다 通牒을 接受한 佛國政府는 大驚失色하야 即時 비에우外務次官은 블룸首相官邸에 訪問하고 協首對策을 協議하엿다 그結果 夜에들어가 在外使臣에 對하야 關係國政府와 接見하야 關係國政府와 接近하야 그態度를打診하도록 訓令을發하엿다 佛國政府는 關係國政府의 意向을 打診한後 獨逸政府에 對하야 共同抗議、或은 聯盟에 提訴하는 模樣인데 外務當局은 히틀러總統의 거듭하는 橫暴한行爲에 憤慨한 面貌로 十四日右와 如히 말한다

獨逸政府의 今回擧措는 全然 政治的意圖에서 나온것이다 國際河川條項廢棄로 이제야 베르사이유體制中殘在한것은 업서젓다 다음오는것은 植民地의 返還을 要求할것이다 今回의擧로影響을 受하는것은佛國外英國其他多數國家에 미치므로 佛國政府는關係國과 協議하야、同問題를 聯盟에提訴하는一方 英國은佛國과共同으로獨逸政府에 嚴重한抗議를할것이다

米國商務省發表 飛行機輸出統計

中國이斷然首位

【華盛頓十三日發同盟】米國商務省은 十三日 今年 一月부터九月까지의期間에 飛行機及 部分品輸出統計를 發表하엿는데 百萬弗以上의 飛行機購入國은 中國、亞爾然丁二國으로 中國은 依然第一位를占하고잇다 各國別統計는 如左하다 一九三六年一月부터 九月까지 (單位千弗)

中國	六、〇六四
亞爾然丁	一、四八五
濠洲	四八一
日本	四七九
暹羅	四六一
秘露	三一五
콜롬비아	二九四
브라질	二七六
智利	二八
其他合計	一五、八八二

叛軍空襲으로 數百名이死傷

戰況發表防衛司令部

【마드리드十四日發同盟】防衛司令部는 마드리드의 戰況에 關하야 十四日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政府義勇軍은 十三日夜來 우세라·비며야·메에며地區의 戰鬪에서 다시敏捷前進하고 一方칼·도·카르로陣地를 奪還하야 叛軍은 카라반첼로부터 擊退되엿다 政府軍步兵及空軍部隊에게 叛軍部隊의 掩護下에 逆襲하야 왓다 昨日政府空軍에게 射落된 叛軍機九機中二機는 伊太利製, 七機는 獨逸製이다 政府軍의 行方不明된 飛行機는 겨우三機에 不過하다 民兵部隊는 全線에 亘하야 叛軍陣地에 向하야 攻擊을 加하고잇다

【마드리드十四日發同盟】叛軍所屬大型爆擊機數機는 十四日午前에 防衛司令部의 發表를 벌리고 마드리드市上空에出現한際 그로리에다아르차廣場에集合한 大群衆을 目標로 二十個의 爆彈을投下하야 突然한空襲으로 群衆은 避難할틈도업시 即死五十名 負傷二百名을내엿다 다시 爆彈은 廣場의 前道를 貫通하는 地下鐵까지 大穴을 내이고 他一彈은 土木省의 玄關에 命中하야 二個의 大柱를 破壞하는等 現場一帶는 目不忍見의 慘狀을 呈하엿다

叛軍水攻戰法闡明

【세르비아十四日發同盟】叛軍은 세르비아放送局으로부터 首都防衛軍이 意外에도 頑强한 抵抗을함에 鑑하야 마드리드의水道를 斷切하고 斷水作戰에 나갈 方針이라는旨를闡明하엿다

蘇聯反國家運動 檢擧全國的擴大

레닌그라드獨逸人十一名逮捕

莫府서逮捕된 獨逸人合計十名

【伯林十四日發同盟】莫斯科로서의 情報에依하면 反國家運動의 嫌疑로莫斯科에서 檢擧된 獨逸人은다시一名을增加하야 이제十名에達하게되엿다 그外에 레닌그라드에서도 獨逸人十一名이檢擧되엿는데 檢擧의手는 다시蘇聯內外人에도向하야 全國的으로擴大될模樣이다

聯盟總長英佛外相訪問

【쥬네브十四日發同盟】聯盟事務總長압브놀氏는 來週中 巴里、倫敦을訪問 英佛兩國外相과會見하기로 決定하엿다 事務總長은 무伊首相이 미라노에서行한 演說에서 聯盟無用論을 唱道함에 對하야 英佛兩國政府와協議 聯盟의 態度를決定할것이라 推測된다

條約廢棄에關한 獨逸政府當局談

【伯林十四日發同盟】獨逸政府는 國際河川條項廢止通告에서 劈頭爲先엘베、오델、따뉴브國際委員會及킬運河에 關한 베르사이유條約規定이 獨逸의 主權과 相容되지안는 點을 强調하고 또 右에 對하야 河川及 運河에 關한 現行制度의 不便을 指摘한後 左와 如히 述하엿다

獨逸政府는 主權回復의 見地로부터 獨逸의 水域에 關한 베르사이유條約及 이에 基하야 決定된 現行諸法定을 廢止한다 따라서 獨逸政府는 國際委員會에 對한協定을 벗서 停止하고 代表者의 撤退를 行하고 一方獨逸政府는 此等河川에 對한 今後方針을 玆에 闡明한다 即獨逸船舶과外國船舶과의 間에 差別을 設置치안코 全部同樣으로 航行稅를 徵收한다 獨政府는 今回 各國政府가 各各自國領土內의 內地水路를 航行하는 獨逸船舶에 對하야 同樣의 特權을附與할것을 希望한다 다시 獨逸政府는 水路當局者로서 隣接國의 關係當局과 協議하야 情勢에 適合한條約을 締結할用意를가젓다

煙草價引上

今月十二日突然 煙草價引上은 發表되엇다. 煙草價引上은 이미 大藏省의 旣定方針일뿐아니라 專賣局으로부터 一割程度의 引上을 斷行하리라 漏洩한바잇서서 새삼스러운일은아니나 期日을明年三四月頃 又는일러도 明年正月부터 實施되리라 하던것이 突然發表되고 또一律的으로 二割이란 高率로 大幅引上을 斷行하게되니 한층더 놀내게되는것이다 煙草稅가 酒稅와가티 現在日本租稅中 重大支柱가되며 現在 財政狀態로보아 增稅할 財源이되는것은 再言할必要조차업거니와 그것이 專賣品이며 또一般社會大衆의 消費必需品에 大幅增稅를하는데 더軍大性을 띈것이다. 煙草稅가 一般大衆에게 課하는 大衆課稅인만치 社會政策的加味도 必要할것이다 即經濟的困窮한細民層을 考慮下에 너흐며, 또 地域的으로도 朝鮮은 日本內地보다 經濟的文化的生活水準이 低下하니 이런點에도 考慮가 잇서야할것이 아니엿던가 또期日을 發表치안코 突然히 그引上을 發表하게되니 『非立憲的行使』라는 非難까지 밧게된것이다

蘇、滿共同防衛協定

去十月二十八日부터 莫斯科에서 蒙古人民共和國首相兼外相아물氏와 면레少將이 蘇聯政府首腦와 審議한結果 共同防衛協定이締結된것이라한다 아직右報道가 確實하지는몰르나 그內容은 蒙古國의機械化部隊及 空軍의擴充 士官學校의設立、共同作戰根據地로서 치타에軍事設備充實等이라 이協定은 나치스獨逸伯林에서發表되니만치 그眞僞는 아직알수업스나 日本을 目標로한것이明白하니만치 日中交涉이、防共北中兩難關에逢着한이때이라 極東에 큰波紋을줄것은 否定할수업다.

女子參政權問題

行政機構改革案을 圍繞하고도 東京政界는 그空氣가 極히 平穩치못하던것이 四相會議、五相會議로 漸次解決의 曙光이비칠라고하는이때 또日本憲政上一大異彩를 보이여줄 事實이이러낫다. 그는卽女子參政權問題이다 單一部에서 議會의權限縮少論이 擡頭되고 이로써 一般政界에큰 波紋을 이르키고잇는이때 陸軍에서는 獨自的立場에서 選擧法及 議院法의 改正을 中心으로 研究中이던바 選擧權에 對하야 (一)議會의內容을 刷新充實케하기爲하야 被選擧權을 改正할것 (二)民意暢達의 徹底를期하기爲하야 選擧權資格을 擴大할것等을 研究하고잇스며 特히 有權者의 資格擴大의 一方法으로女子에게도 一定한 資格을限定하야 選擧權을 賦與한다는것이다. 女子의 參政權問題는 倫理的社會的正義感으로만이아니라 經濟的政治的 社會的束縛으로부터의 人間解放의 自然的要求의 發現임에 틀림업는것은 再言할必要조차업다. 따라서 그要求가倫理的이던政治的社會的이던 그結果에잇서서 日本憲政史上 一大劃期的事實이며 社會發展의 進步的一過程임에는 틀림이업슬것이다

新維也納議定書締結

伊太利外相 챠노伯은 澳太利首相슈니크氏와 匈牙利外相카야氏와 協議한結果 新維也納議定書를 締結하게되엿다。그內容을 들으면 澳伊匈三國政府는 羅馬議定書에依하야 經濟提携를强化하고 澳匈兩國에 軍備均等의 權限을賦與하고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 帝國倂合을 承認하며 共産主義에對한 統一戰線을 取한다는等인데 具體的으로는 墺匈再武裝軍隊强化와 經濟的聯絡의結成等이다 이新維也納議定은 佛國의 洲政策과 全然相反되는 것이며 따라서 小協商國에對抗하는 陣營이 될것임으로 체코、羅兩國은 트리아논條約의 違反이라고 발서부터 斷然否認할수 업다고 反對를表明하고잇다 따라서 今後에兩陣營의對立이 漸次擴大할뿐만아니라 그結果人民戰線과 國民戰線의對立이 一層露骨化하지나아니할가 자못興味잇는 問題이다

獨蘇關係의險惡化

十一月七日 蘇聯革命記念日에 莫斯科에서 獨逸人外 澳太利人英國人等九名을 檢擧한事實로서 獨蘇關係는 漸次險惡化하여간다 그內容을 둣건대 此等外國人은 모다 트로츠키一派의 反革命運動에 參加한 嫌疑로 檢擧한것이라고하니 仔細히알길이업스나 뉘른베르나치스黨大會에서 히틀러總統、로젠베르等의 나치스首腦部가 볼쉐비즘打倒를 宣言하고 蘇聯外務人民委員 리트비노프氏가 反擊演說을 闡明하엿든 以上今後그發展은 자못 注目할바이다.

葡萄牙國境과 西班牙海港監視

西內亂不干涉委員會에서一致로採決됨

不干涉監視案內容

【倫敦十三日發同盟】西班牙不干涉委員會는 十三日會議에서 不干涉監視案을 採決 監視案關係各國空軍武官으로 同案起草에着手하엿다 一方委員長프리마스卿은 右監視案을 關係各國政府에 通達하야 各國政府의 正式承認을 得한後 同案은 西班牙政府軍及 叛軍에 通達될豫定이다 監視案內容은 如左하다

一、西班牙內亂에 直接關係업는 歐洲各國의 公平한 代表로써 二個의 委員會를 設置 一方은 西班牙政府地方은 叛軍國防委員會와 協力하야 不干涉協約의 實施를 監視할것 監視委員會의 構成은 不干涉委員會 全會一致의 贊成을 必要로함

一、委員會는 西班牙海港 西班牙 葡萄牙國境 其他武器禁輸違反의念慮잇는地點에 對하야 嚴重監視의任에當할것

一、委員會는 特定의境遇에 不干涉委員會로부터 指令을밧는 外는 獨自의裁量에基하야 任務를 遂行할것

一、監視委員에 外交官의特權을 賦與함은 叛軍政權에對한 默示의承認으로 解釋될念慮가잇스므로 特權은賦與치아니할것

日曜氣配

▲株式＝雜株는 아직 玉整理中이나 紡績人絹의 業績樂觀으로 押目買氣强하며 今日發表의 增稅模樣待勢로氣配不變 大新 七七、四 東新 一三八、五 鐘新 一三六、五 日産 八八、三

▲期米＝朝鮮産地安으로 目前弱을 包含하나 아직 産地模樣如何로 氣配不變

八面鋒

◇西班牙 政府軍은 首都로進擊한 反軍을 擊退하고 本據를 다시 마드리드에 두엇다 공.

◇알수업는것은 西班牙의 革命所종.

◇波瀾重疊튼 義務教育期間延長案 마침내 閣議서 採擇決定.

◇어제 비로소 獨佛을 건졋 教育制度가 實施되는셈.

◇그러나 學齡兒童의 二割도 收容치 못하는 朝鮮의 初等教育은 어떠케 하라 농.

◇壽松公普 失火兒童에 對하야 同校校長은 報恩感謝의 생각으로 자라도록 教育하겟다 공.

◇이 진실로 教育者의 精神.

今日本紙四面

「尿病」과「性病」에 推奬하는藥草(하루놀) 實效
…本劑를 常用하야 完成한 藥効의 自然療養法을 發表하야 朝鮮의 病者에게 無料로 配付하는데 本療法 實驗者는 此際 同部로 申込하라 神戶市本通五丁目 神社前 自療會 和歌山市公園前大通 自療會 普及部

矢野 고후신 銀河水 登錄商標 矢野テントウ商會 大阪市西區日吉橋北

世界 運動靴 登錄商標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新設町一三七番地 電話光(3)二八三七番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恩給 長期低利立替 件及借換其他 有利 地方人士 照會詳細答 京城授恩町一六〇 鄭商會

超特品羊皮類一式 賣成商店大廣告 … 寶成商店 謹告

廣告 今般京城府清凉里葬儀場에對하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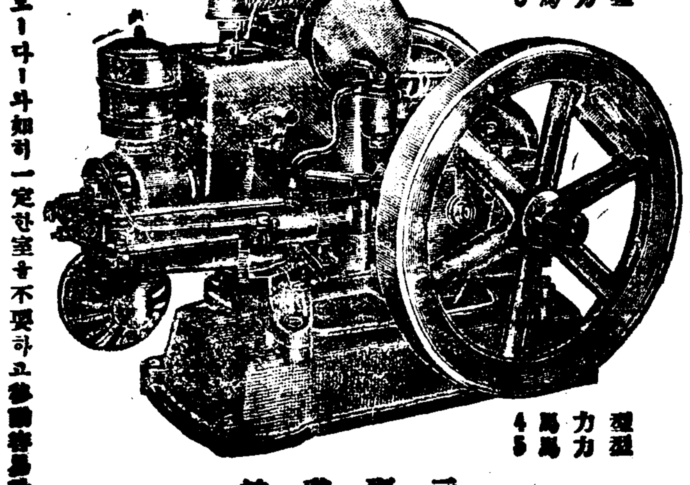
小兒內科 血液檢查每日施行 趙漢英醫院 京城 電話光二一九八七

朝報案內 ◇家庭 歌謠懸賞募集 賞金 一等三十圓、二等二十圓、三等十圓 (各一篇採用) 京城中央放送局 家庭歌謠懸賞募集

海陸物産 皮物 鳥獸 藥種 果物賣買 委托販賣業 東大門商會 京城鍾路四丁目一五八 電話光二一一八六 (東大門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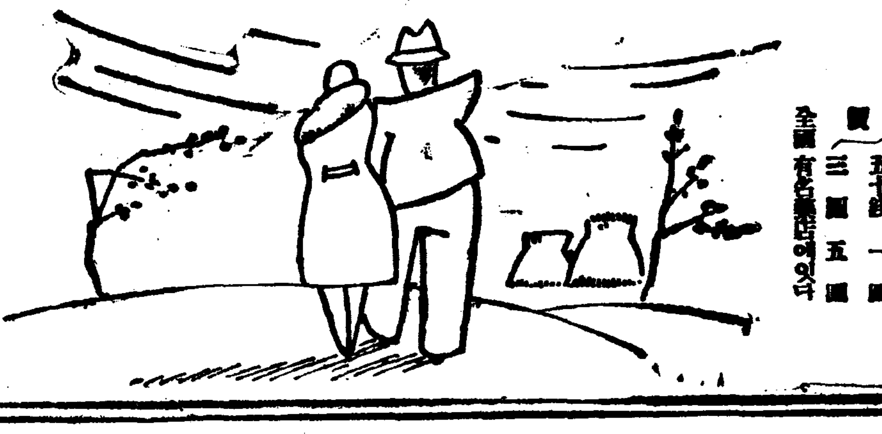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十圓 平和堂 京城堅志町

世界唯一●完璧을誇한 農業用 小型 얌마ー디ー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一、運轉經費는 電力의 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 十分之一
二、始動簡單, 兒女子라도 容易히 運轉함
三、出力强大, 作業能率優秀
四、エー디ー와 如히 一定한 室을 不要하고 移動容易함
五、回轉에 差가 없이 エー도 用途에 歡迎
型 力 馬 2 3 / 型 力 馬 4 5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元賣發總 山岡發動機京城支店 株式會社 山岡內燃機株式會社 京城出張所 京城驛前



『保險金領收廣告』 一金壹千四百圓也 本人이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月掛」日本動産火災保險會社」와 契約中이던바 不幸히 火災에 罹하야 同社의 寬大한 處分으로 今般前記와 如히 保險金을 支拂하야 줌으로 確實히 火災保險의 고마움에 感謝하와 玆에 謹告하나이다 昭和十一年十一月十四日 京城府昌信町六二九 趙奎鎬

感氣解熱 特効藥 實効散
感氣는 예전부터 治療에 怠慢하야 餘病이 생겨오며 감이 普通이다 副作用이 업는 實効散으로 속서 꼿처야함을 잇지말나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全國有名藥店에 잇슴
東京市 本舖 師岡天佑堂



中等校入學試驗 朝鮮은從前대로

在學成績과體格檢査에置重

入學準備弊害를芟除

중등학교의 입학시험문제는 다시명중의 입학시험고를압두고교육계와일반사회의 관심을 끄는문제가되어잇다 어미일본내지각부현에서는 혹은 시험을전폐하기로발표하엿스며 혹은 시험과목을 려사한가지로제한하기로발표하야 큰센세슌을일으키고 잇는때 그러면 조선서는 입학시험문제를어떠케할려인가하무국에서는의연히 재래의방침대로 시험과목은 국어와 산술두가지로하되 시험문제를 극히 평범하게하야 명시의 성적 즉초등학교의 재학성적 체격 검사등을 중요시하게할에 고칠러이라한다 일전에춘천(春川)서 열리엇든 고등보통학교장회의와 군산(群山)에서 열리엇든 중학교장 회의에서도 입학시험 문제는 론의되엇스나 별로신통한 의견도 업섯고 다만재래의 전과방침을 더욱강화하야 입학시험준비 교육의페해를 덜게하기로 대강의견이결정되엇다한다

또입학시험과목을 특수한 한가지로지정하면 도리어 준비교육의페해가 커질뿐아니라 초등교육에잇서서 전과정을 평균하게학습식히는 취지에 어그러저시험과목만치혀 공부할페해가 생기매 그러타고해서 시험제도의 철폐를단행하기에는 조선가리 중등학교가 적은곳에서는 도리여정실(情實)관계로입학자의 전형을하는폐단이 생길념려가 잇슴으로 불완전하나마 현행제도의철저한 실행이외에 길이업다한다

咸興師範、京織工業 大田엔女子高普

明年度에新設키로確定된것

명년도의 공립중등학교신설계획에대하야도 방금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식히고잇는데 현재확정적으로 개교될것은 관립으로는 함흥(咸興)사범학교 경기도의 공립공업학교(가칭) 중남의 대전(大田)녀자고등보통학교의 세학교다 그리고 일전에긔보한 학무국의 십개년가설업학교확충계획은 예산의 관계로 실상년도부터실시하리라한다

安全地帶와衝突

自動車運轉手助手重傷

십오일오전령시반경에 시내종로이정목 오십이번지압 안전지대에서 시내 황금정 사정목오십번지 조일(朝日)자동차 운전수김봉태(金鳳泰)(二七)와 조수안칠남(安七男)(二○)이가 경(京)구전사십구호 자동차를 동대문쪽에서 종로로행하야 몰고가다가 잘못하야 안전지대에 충돌하야 안전지대와 조명등을 부시고 운전수와 조수가 모두중상을입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엿는데 자동차유리창도 산산히부서젓다고한다

妓生花代詐欺

【開城】부내지정(池町)백오십일번지 김순봉(金順鳳)(二三)은개명권번(開明券番)에 소속되어잇슴을기회로 긔생화대권을사지고 로써 홍유를 일삼으든바 그는 지난팔월이십사일 모료리점에서 긔생림정옥(林貞玉)의화대 십원을바다 소비한 사실을비롯하야 그후구월하순경은 리봉오(李鳳五)회대 [illegible]원등십칠일은 박련화(朴蓮花)화대십원과 송봉주(宋鳳珠)화대삼원 시월이십구일은 리명화(李明花) 화대 삼십원을 전긔와 가튼 수단으로 사취하야 매일밤 술거리에파무처 호탕하게 놀다가 지난십사일 경찰에 탐지체포되여 엄중취조중인바 아직여죄가잇는듯하다한다

販賣會社創立키로 開城蔘界遂一致

雙方의讓步로紛糾圓滿解決

【開城】蔘業者간에 분규가되어오든 삼업조합과판매업자간에 분규시건은 삼개월이되도록 원만한해결을 보지못한채 의연히 사태만혼의하든중 지금시삼만근의신삼(新蔘)이 우만여근이 판매된뿐그대로 재고중에잇서서 인삼이생명선인 개성의 경제계는일반적으로 부진상태에빠저잇섯든것이다

이것은 비단삼업계뿐아니라개성대국을 위하야 일대손실로간파하 부청당국과 경찰당국은그후 쌍방의해결책에 부심한결과 요지음에야 쌍방이 호의적양보로써 붕괴되엿든 삼상들의판매회사는 재조직하기로 내정되여 지난십사일 오전십일시경 부내인삼동업조합(人蔘同業組合)에서 백여명회원이모혀 손홍준(孫洪駿)씨사회하에 이십만원의 판매회사를 창립하도록 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는데 이로써 파란중첩든 개성삼업계는 완화되것인바 창립준비위원은 다음과가티 선정하엿다한다

孫洪駿 中双 田在玉 韓宗錫 崔瑞模 金昌洙 趙德濬 金世煥 金鎭英 閔蒼植 孫命基 金東勳 孫文煥 金武煥 趙復淵 林漢瑄

별보=이싸움에 근거지를 일코 다라낫든 김일성(金日成)의일대백여명은 십이일밤여덟시쯤 돌연괴판동(檜關洞)두정욱기를 대금회산하야 징수하엿때에 응함밋가마니 색기갑까지 계산하야 징수한다는말은 드렷는데 참으로 무리한술 생각합니다 그러고 중간농간(農監)회 소위가아니고 동척의방침이라합니다 아직 문제가소작인측에서 표면화하지 아니하엿슴므로 그때를 기다려서 대책을 강구하고저 생각합니다 운운

母性에靈藥
젓잘나는약
라구도민
適應症 乳房發育不全 疾病熱病 貧血 萎縮等原因으로 乳汁缺乏症 에 偉效 又 胎中補藥으로使用함
藥價 三円 六円 十円
京城府鐘路六丁目二五
國際新藥研究所
振替京城二七三番 電光二六九八番

醫學講演盛況

라산의학회(羅山醫學會)주최본사회예부후원의 제이회통속의학강연회는 예정대로 십사일오후일곱시부터 부내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리여 대성황리에끗을마치엇는데 당야출연한연사와및연제는 다음과갓다

一、異常體質兒에對하야 李炳南氏
一、空氣와健康 崔毅植氏
一、花柳病에對하야 金應允氏

乃妻純情에感化

【滿州】지난십일일 청주경찰서에 어떠한 젊은 녀자가 차저와서 절도죄로 피검유치된 남편과의 면회를 애원한일이잇섯는대 면회당시 녀자의 참된마음에 남편되는자는 참회의 눈물을 금치못하엿다는데 그극적장면에는 사법형사의 소매도적시엿다고한다

본적을 론산군강경읍금정 (論山郡江景邑錦町)에 둔 김성수 (金成洙)(假名)는 절도전과사범으로 청주형무소에서 이년의형그릇마치고 지난오월에 출옥하엿다 그래서 참된사람이되여서 살라고 하엿스나 세상은 무정한지라 전과자라는 죄명으로말미아마 일자리를 엇지못하야목숨을 이여갈길이 업서서 지난이일 또 절도죄를짓게되여 피검되엿다 그안해 정영옥(鄭英玉)(假名)(二○)은 남편이 참된사람이되여행복스럽게 살겟다는 구든맹세도 수포로도라가고 차고찬철창으로 갈남편의신세를생각하며 자긔의신세를 한탄하엿섯다 자긔를만나려는 안해에대하야 김성수는 이런놈을생각지말고 맛당한사람을만나 행복스럽게사려주기를 바란다고하자안해는 당신이깨끗한마음만 갓는다면 몃십년이라도 당신을 기다리겟스니 부대부대 참된사람이 되여 몸성히 잇기를빌며하로라도 속히형긔를 맛치고 돌아오기만 손곱아 기다리겟노라함으로 김성수는 안해의마음에감복되야 참회의 눈물을 금치못하고 목을노아 울엇다는데고결하고 순진한그녀자의 마음에감회깁흔듯 그들의소매를 적시게 하엿다고한다

永登浦에新設된 鍾淵工場竣工式

영등포(永登浦)에잇는종연방적주식회사(鍾淵紡績株式會社)경성지점의공장준공식은 십오일오전열시사십오분부터 동공장식장에서열렷는데 관민유지약일천오백명이참집하야 대성황을이루엇다식이끗난후이어서 렵시삼십분경부터 공장(工場)에 안내한다음 축연을베풀엇섯는데 오후두시쯤에산회하엿다

共産軍의根據地를 飛行機隊로衝擊

三名을捕虜코食糧多數도押收

【咸興】비행긔산포등으로 편성된 공산군대토벌단은 행동개시이래 각지에서 전전(轉戰)중인데 십이일오후두시경 혜산진수비대(惠山鎭守備隊)는회령(會寧)으로부터 비래(飛來)한 비행긔와 협력하야 공산군의근○○대와 거지십구도구호학자(黑瞎子)에서 공산군과수시간격전끄테 공산군세명을 포로(捕虜)한후에 식량 품다수를 빼아섯다 이싸움에 조선사람당도(鄕導)한사람이 중상을당하엿다

敗走한金日成은逆襲

거지십구도구(黑瞎子)에서 ... 지고 역습(逆襲)하야 약한시간동안 서로 맹렬히 싸우다가오지로돌아갓다

팔기도問題된 普天教의建物

【全州】지난십일 전북정읍에잇는 보천교 건물처분에대한 사건은 긔보한바잇섯거니와 당일은건물을 부분적으로 난우워입찰에부첫스나 거지반공정가격에 달치못하얏든지 재입찰에부치기로하엿다는데일자는당국이결정되는대로추후발표키로하엿다고한다

웬수의돈!

【大田】멀리• 떠러저잇는 남편을 차저가야할려인데 원수의 돈이 업서서 차표를 사지못하고 아들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품에 안은채로 차표도업시 차를타고 기다가●차장에게 발각되어 두러워 아이를업고 안은채로 차에서 뛰여내려 생명이 위독하게된 참극 — 지난 십이일오후세시삼십분경 대전 회덕(大田懷德)간 대전괴점 오키로에서 제오호렬차가 질주하는중에 본적을 경북상주(尙州)에둔 최씨(崔氏)라는 녀자가 아들 좌근

方面委員制度 擴充强化策

有給書記配置委員嚴選等

社會課에서研究中

사회사업의 제일선에선 방면위원제도(方面委員制度)는 조선의실정에비추어 더욱그긴요성을늣기고잇다

현재조선내 각중요도시에잇는 방면위원수는 이백팔십명이나되나 그내용이아즉 충실치못하야 완전한긔농을 발휘할수업는 현상임으로 총독부사회과(社會課)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기로결정하고 명년도예산편성까지에는 성안을 작성하야그소요경비를 계상하기로 되엿는데 그구체안으로는 방면사무에대한 유급서긔(有給書記)의배치방면위원의엄선 방면위원제도의사무취장등이 그중심점이 될것이다

時局標榜强盜犯 昌城郡青山面에出現

現金卅圓을强奪코悠悠潛跡

【新義州】지난십이일 오전두시평북창성군청산면룡구동(昌城郡青山面龍谷洞)일백륙십오번지 농업 김영수(金永洙)(三七)방에 괴한두명이 침입하야 우리들은농국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려고 수일전 조선내에 침입하얏는데 긔부금으로 일천원을 제공하라고 협박함으로 현금이업다고 대답을한즉 "벼"팔돈이잇는것을 알고왓는데 내지흑안호면 모다살해를하겟다고 협박을하야 결국 현금삼십원을 강탈하야가지고종적을감추엇다한다

夫婦싸움끄테 自己집에放火

【淸州】충북제천군백운면화당리

北國엔宛然嚴冬 咸州에積雪尺餘

벌서零下三度를指示

【咸興】함경지방에도 벌서초동의 발거름을 옮겨드듸게되야 이상일전부터는 갑작히추워지드니 십삼일오후여덜시경부터는 싸락눈이 나리기시작하야 십사일까지에도 이따금 비와 눈이 석겨나려 약이문가량의 적설을 •보게되얏다 한주군하긔천면(咸州郡下岐川面)에는 약일척가량이나 적설이되야 완전히 은세계를 이루엇다 긔후는 점점추워 십사일밤은 령하삼도의 첫치위를보엿다

英語雄辯大會

一等은永生、貞信

연전주최 제오회 전조선남녀중등학교 영어웅변대회는 예정대로 십사일밤일곱시반부터 부내 배재고보강당에서 개최되엿는데 참가학교는 배재고보를비롯하야 남녀여덜학교엿다 심사원 윤치호(尹致昊)씨등 다섯분의 엄격한심사미테 변사들은과각그들의열변을 도도히 토하야 방열시에 꼿을피엇는데 심사결과 입상자는 다음과갓다

男子部入賞
一等 永生高普 김순재
二等 明信學校 박종옥
三等 培材高普 김종을

女子部入賞
一等 貞信女高 김옥한
二等 梨花女高 한정회

無理한徵收方法에 作人側憤慨反對

東拓支店處事에非難漸高

表面化되면 對策을講究

【大邱】동척대구지점 (東拓大邱支店)에서는 경북도내 동척자인에서 소작료운반 (小作料運搬)에잇서 오십리허에잇는 직인으로하여금 무료로서 운반케하는동시에 소작료를 대금 환산하야 랍부할때는 운반료금밋 가마니색 기갑까지 계산하야 징수한다고한다 이로말미아마 동척소작인들은 최근에잇서 무리한횡포에대하야 분개한 남어지에 반대운동이 표면화하는중이라는데 일반은 주목중이라한다 나도 진작 동척에서 소작

普專研劇部第四回公演
原作 山本有三
飜案 普專演劇部
『生命의冠』(全三幕)
時日 十一月十八日午後八時
場所 府民館大講堂
入場料 五錢均一
主催 普成專門學生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運動

京城醫專蹴球 福岡遠征

連覇코저十八日出征

官專蹴球의覇者 京城醫專蹴球部에서는 來二十二日과二十三兩日間 九州帝大主催로福岡市에서열리는 全日本高專蹴球大會에 出戰하야 連覇코저 方今遠征費調達에 奔忙中이라는데 主將張二用君以下 十五名은 同校講師李在厚氏와 同蹴球部監督柳基衛兩氏引率아래 來十八日午後十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 出征할터이라한다

延專과普專

朝鮮代表로決定

明春一月에東京에서열릴 第十七回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朝鮮豫選決勝戰인 普專對高麗籠球團戰은 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京師코ー트에서 關崎、朝師兩氏審判下에열린바 五十九對二十四로 普專軍이優勝하야 前年度의全日本選手權을保持한 延專軍과함께 朝鮮代表로 選定되엿다

普專 59 (3524 : 1212) 24 高麗

實業團卓球戰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五回全朝鮮實業團卓球大會는 十五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大學醫學部卓球場에서 開始된바 夕刊마감까지의 各團體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團體戰(第一回戰)
【明星】勝3:1【專賣】
×西田 1:3 朴譯勳○
○安達 3:0 金野×
○深掘 3:1 松尾×
○森上 3:0 鹽坂×
細淵 高井

◇第二回戰
【鶴林】勝3:0【總府B】
○洪允基 3:0 鄭鏞烈×
○朴絡德 3:0 水島×
○金相滿 3:1 田中×
金德煥 浦邊
諸炳學 海津
【漢陽】勝3:1【鐵道B】
○崔喜 3:0 田中×
×金鉉玉 2:3 植松○
○崔炳夏 3:1 沈啓澤×
○石完鏞 3:0 藤岡×
徐廷烈 小林

明日의運動

▲籠球=第十回全京城籠球聯盟戰第九日 中央對善隣(午後六時半) 中東對一高(午後七時二十分) 協實對京工(午後八時十分) 普專對라이거籠球團(午後九時) 鍾路靑年會室內코ー트(場內整理費十錢)

天氣予報

概況 低氣壓은 樺太北部에七五六미리 日本海北部에七六○미리 또黃海流域에는 七六八미리의 弱한것이잇다 高氣壓은 南滿洲에 七七二미리日本本州의 東海上에 七六八미리를보이고 太平洋方面은 氣壓이 약다 어제不連續線이朝鮮半島를 通過하엿슴으로 大體로 全朝鮮內에 降雨가 잇섯스며 오늘 아침은 南朝鮮하다 日本內地 모다 日氣는 良好하다 滿洲及北朝鮮의 氣溫은 어제아침보다 九度 乃至 十四度로 내렷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개엿다 흐렷다한다 明日은 개엿다흐리고 조곰치워진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十三度六
同 最低 一度七
今朝 低高 一度
今日 正午 七度六

非常時下青年이여 至今이雄辯時代

【辯舌은一生의寶】 反對로自己의意見을發表도못하고도式辭人事에도 能熟하지못하면 남과가티한자리에안지도못하고 責任도못잇는다 그래서어떠케하면 辯舌家가될수잇슬가 벙어리이나 以上 練習을 살하면누구나 남을感動식힐만한 雄辯잇게되는것이니 今般東京小石川區大塚町二十五番地大東社에서 發行한 加藤英命氏著『式辭と對談演說座談の仕方』라고한 四六判上製函入二百八十七頁紙에이르는式辭、人事、挨拶의身體的 動作 精神的準備와 心得事材料의形式演說의組成法은勿論、테ー블스피ー치法式辭案會座談法에서부터 어려운다고하는 演說座談法까지 包含하얏슬뿐아니라 어떠한機會、어떠한場所에서도直時所用되는、有名한式辭、人事、演說의草稿가滿載되여잇서 이一冊만잇스면 決코주저치안코 언제나、拍手喝采를밧는다、그래서同書定價一圓五十錢을、先着申込五百名限하야、特價一圓으로頒布하오니希望者는至急申込하시면卽時 送本하고代金은到着後로한다

一道總販賣權委讓함
支社長募集
新進有力事業家大歡迎
希望하시는분은申込次第規定書郵送함
京城西大門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肥滿劑
身體의肥瘠한데에여러가지原因이잇스나 虛弱하야困難한분은 ... 東京市麻布町七十一 小川藥院

보아젤 에 동공식을 시원 간기유지경
의주풍조의
京城藥局
京城府鐘路一丁目
振替京城三三七番

實業 診療 大衆醫院
鐵町一三五(우미관골목)
電光五二四(오이사)

秋印 製造卸商
福來社
京城西大門町
振替東城九五六三一

若草映画劇場
十二日ヨリ五日間
獨逸バワリヤ超特作 ハンス・アルバス アンナ・ベラ アッテイラ・ヘルビガー
▲ヴアリエテ
P・C・L特作 永田キング 神田千鶴子主演
▲かっぽれ人生
▲東日大毎國際ニュース
▲パ社發聲ニュース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繩打機 空氣銃 製繩機 製叺機 稻扱機
朝鮮實業界急務
合名會社 科善工場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六番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京城府太平通大漢門前

MARUZEN
縮まぬ毛メリヤス
季節의丸善洋品案內 其進步
빨라도決코줄지안코 纖維가뻣뻣하여지지안음으로 언제든지 通氣性이줄지안습니다 卽空氣의新陳代謝를圖하야 保溫層을容易하게減退식히지안는고로 입으서서 따듯하고氣分이조흔 實로衛生的인메리야쓰。普通大判을입는분이라도이것이면普判으로꼭맛습니다
駱駝色・上下 各一枚에付
並判 ¥ 2.75
大判 ¥ 3.25
鮮內送料一組에三.34
京城府本町二丁目 丸善
電本局 4366 5906 振替京城334

祛痰 止咳露
止咳露 (セキドメ)
鎭咳、喘息、百日咳에特効
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製造元 止咳露祛痰 止咳散祛痰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鍾路三・振替京城一九〇七

소년조선일보

불속에뛰어드러 다리저는동무를구한소년

담엄선생이 보고 우럿습니다 / 불단(壽松公普)가 남긴 미담

지난달이엇 오후한시십분에경수송공립보통학교 리과실험실에서 불이일어나 조선서제일큰보통학교라면 그큰집을 삽시간에 평정하엿다는것은 그당시에 신문에 굉장히낫습니다

이때에 큰불이나서 정신을차릴수업는 수라장에서 열번에엇던 다리저는 동무를 구해낸소년 두사람이 잇습니다—이야기의 자세한것을 소개하면 구학교오학년생인소년 담이눈 정석규(吉…)이란 열두살 먹은 소년은 발을다리가 저러서 행보에 자유롭지 못하엿습니다 이소년은 어느때나 교실에 들어잇서서 남들이 운동하고 뛰놀때는 혼자만읽고 잇섯습니다 이소년과 평소에 재일세이조케지내는 한반생도 조남규(趙南奎)란열두살된소년과 리영표(李永杓)란열세살된 두소년이 밧갓 운동장에서 놀면서도 늘 함께 뒤놀수업는 길동무생각을 하고엇떠는데그날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 불이야!불이야!하고 웨치는소리를 듯고 제일먼저생각나는것이 거름거리를 남과가티 하지못하는동모생각이낫습니다

그리하야 불꼿치 험험타는교사속으로 동모를 구하려 다름질처거는 조남규소년이엇습니다 그때 길소년은 교실에서 겨우거러나와서 랑하에서 동모와마조치자 조소년은 길소년을 업고 간신히 나오라할때 이또한길소년을 구하려쫏처드러온 리영표소년과 마조첫습니다 그리하야 량소년은 좌우로 갈러서서 길소년의 겨드랑을 끼고 겨우겨우 운동장으로 다름질첫습니다 조용할때면 모르거니와 불꼿치 하날을 찌르고 벽돌이튀여 어른들도가까히가지못하는 위험한곳에 자긔의위태함을 생각지안코 벗을 구하려 불속으로 다름질친 두소년의용맹과 우정은 정말 아름답고 착한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년조일기자가 그소년들을 차저학교로갓습되다 뼈만남고 다타버린교사는 앙상하기짝이업섯습니다 운동장에서 화제 뒤치장을 하느라고 분주한가운데 오학년일변입조다임 쓰지(辻)선생을 차즈니 그선생은 이세소년을 소개해주고 그때는 제일 걱정 되는것이 길소년 이엇습니다 아모리 차저야 보이지안키에 그만 멋칠때 하얏습니다 나중에 불사허 피난한것을 알고 그만 그애를 꾸어안고 우러버렷습니다

「본래부터 이세소년은 사이가 조코 성적이모다우수하며 조행이 조흡니다」하고 세소년을 번가러가며 머리를쓰다듬엇습니다

그때마침 길소년의조모되시는 조씨께서 길소년을다리러 차저왓습니다 할머니는 조군과리군 량소년을 어루만즈며 치하하는 양은 아름다운 인정극이엇습니다 기자도 세소년의 머리를쓰다듬으면서 치하의말을하니 조소년은「학교가타버리고 그모양이되엇스니어케하면 조와요 그러나 선생님(길소년)이가 다치진 엇스니 재일기뻐요!」하고 깃버 볍의손을어루만지고 잇섯습니다

기자는 그만 눈물이 아롱거리엿습니다 아름다운 우정이엇습니다

리소년은 계동정(桂洞町)사십팔번지의이호에 사는리규동(李揆東)씨의 맛아들이며 조소년은 계동정(桂洞町)일백삼십번지에사는 조만구(趙萬九)씨의 맛아들입니다

사진향하야 오른편으로부터조소변 쓰지담임선생 길소변조소변 길소변의 조모되시는조씨

童話

담배커우든 호랑하라범

李榮珠 作

옛날도 아주 오—랜옛날노호랑이 담배피든—옛날이라고 하지 안허요。그때이야기입니다。

저—남쪽 태백산이란 기픈산속에 담배를피—조화하시는 호랑하라범 한분이살고잇섯습니다。또바로그산 아래 동리에는 담쟁영 오막사리 담배가게가하나 잇섯습니다。하로는 호랑하라범이 담배가 다—떠러저서 그 오막사리 담배가게로 담배를사러 꼬리를 설렁설렁 흔들며나려갓습니다。

방안에서 애기책을 보든 담배장사 할아버지가 호랑하라범을 보고 나오시며

「어—호랑하라범 오래간만일세 그래 그동안 잘잇섯나」

「네 담배장사 영감님 안녕하섯습니까」

「응 잘잇섯네 아 그래 그만흔 담배를 벌서 다—피웟단말인가」

「네 그저 이제는 어렵게 늙어저서 산냥도 못나가고 동무도 업스니 담배밧게는……하하하하」

「그러치 아무것도 늙어지면 쓸데업지 허허허」

「자 담배 두냥어치만 주시요」

담배장사 하라버지는 담배두냥어치를 집오래기로 역거서호랑하라범에게 주엇습니다。호랑하라범은 구녕뚤린 엽전 두푼을주고 담배를 바더들고

「담배장사 영감님 안녕히게십시요」

「어—또오게 그리구 가짬하거든 좀놀러두 오겟나」

「네 오지요」

호랑하라범은 그먹고십든 담배를 사서드니 참 흥이나거든요 그래 덩실덩실 궁뎅이 춤을추면서 다시 산폭대기로 올라갓습니다。

나는듯이 산중을오나리든 그 날센호랑이지만 다늙어빠진오늘에는 그산을 오르나리기에 여간 힘이들지 안엇습니다。그래 얼마올라 가지도못해서 숨이차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에 시근땀이 흘러서 더 올라갈수가 업섯습니다。

「휘—참 이제는 다—늙어것다」

한숨을 쉬고 허리를 툭툭치며

「에조끔 쉬여 담배나 한대피고 가자」하고 바위우에올라안저 허리춤에서 부시럭부시럭 담배통치를 펴노코 긴—담배대에다담어피워 물엇습니다。

소나무숩을 쏴—쏴 울리는산바람이 호랑이 이마의 땀을거더주엇습니다。아마도 퍽—퍽— 뺑어내는힌담배 연기를 물끄럼이바라보고 젊어슬째 그우렁찬 소리를 질르며 산중호걸로 뛰놀든옛생각을 하엿겟지요、그호랑하라범은……

아픈 허리를 쉬며 노픈 바위우에 안저 산아래 동리를나려다보며 담배를 피우는 그맛이라함 여간 조치안헛습니다。정신업시 한참 담배연기 올라가는것만 멀거니 보는 사이에 담배가벌서다탓습니다。

「허—참 맛조라 에라 한대터 피우자」하고 대통은 톡톡 털고 다시한대를 피워물엇습니다

이번에는 바위우에서 나려와 새파란 잔디우에 드러누어 꼿얼는 푸른하늘을 처다보며 팔자조케 퍽—퍽 땜배를 피웟습니다。

이때에 조고마한 여호한마리가 그곳을 지나다가 호랑하라범이 담배피는것을 보고 솔그머니 저도한때 어떠떠고 시픈 생각이나서

「아—호랑 아젓씨 여기서 담배를 자시네」

「어— 여호족한가 그런데 어델가나」

「아젓씨가 요새 안녕하신가하고 아젓씨집엘 갓드니 안계서요 그래 돌아오는 절어애요」

「허—그것참 섭섭하게됏군 그래」

「그런데 아저씨 그담배 참맛이 조켓습니다 그려」

「조코말구、둘이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지 허허허……」

가득이나 먹고십흔데다가 이말을 듯고는 더참을수가 업서 침을 꿀떡생키며

「아저씨 그럼 저도한대만 피워 봅시다그려」

호랑하라범은 담배달라는말에깜작놀라 눈이둥그래저서 담배봉지를 감추며

「허—안되네 자네는 아직나이가어려서 안돼 그대도 담배란 나이가 지긋해서 세상이어떠라는 것을알때야 피는것이지 새파란 절문 놈이 담배가 다머냐 어서 볼일이잇거든 빨리 가보게허허허」

이말을 들은 여호는 그만성이나고 무안해서 입속으로 중얼 중얼 욕하면서 가버렷습니다。

퍽쪽 퍽쪽 먹산에 퍽쪽새소리 풍—풍—산울리는 물방아소리 게다가 따스한 해빗아래 푸근한 잔디우에 누어 담배피우니 신선이늘부러워겟습니다 이욕심쟁이 호랑하라범은담배를피워 문채 저도모르게 소르르 잠이 들어 버렷습니다。그러나 큰일낫습니다 그담배대에 타다남은 담배불이 잔듸에 붓터서 조곰식 조곰식 호랑하라범 아프로 타드러가기 시작햇습니다。조곰잇드니 그불이 이리저리 퍼저서 호랑하라범자는 가장자리에 뺑둘라 타올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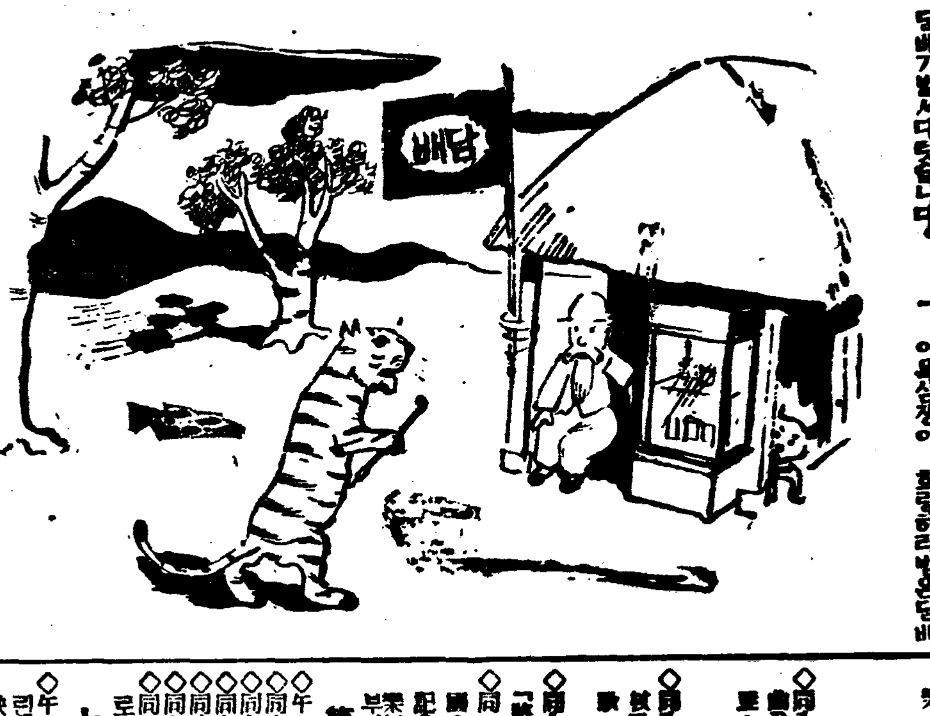
산울넘고 장욱건너뛰며 놀든엣날일을 꿈꾸노라고 불붓는것도 모르고 코만 드르렁 드르렁고는 이호랑이 궁뎅이에 불이담겻습니다。

「뜨근」「아이구 뜨거워 사람 살리오 아니 벌불살리오」하고 웨치엿습니다。잡어먹을드시 새빨간 혀를 내두르며 달려드는 불길에 고만 어찌나 놀란는지 정신업시 그불바닥으로 때굴때굴 굴러 나왓습니다。겨우 죽지는 안코 살어나왓스나 그만 그곱고도 보기조흔 노란털이 아짤게도 불에거실리어 꺼뭇꺼뭇 하게 러버렷습니다

또그술기든 담배와 긴담배대는 그불속에 다—타버렷습니다 그래 호랑하라범은 그후이난후부터 다시는 담배를 피지안흘람터러 담배불을 보기만해도한십리나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담배불에 덴이라서 지금호랑이털도 얼럭덜럭하게난답니다。

—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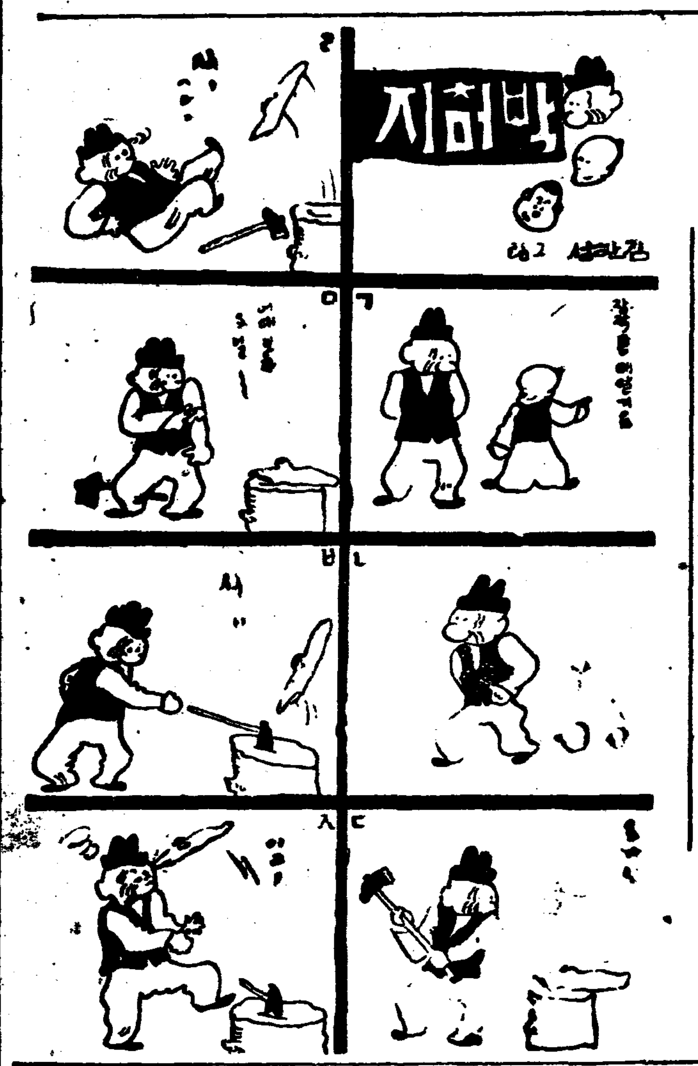


「어른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못할게 무엇잇나?」

어려케 생각을 먹고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극장에도 드나드는 아이들이 만타。한번 그러케 생각이 들기만 하면 아모리 금하고 말려도 몰래몰래 계속해 가게되는 것이다。그러나 아이들과 어른은 여러가지로 달다。위선아이들은 완전하게 다 큰것이 안인만큼 신체도 어른과 갓지 못하고 정신도 어른과 갓지못하다。

「어른이 하는 일이라고 너의들이 어떠케 다 할수 잇느냐? 그리고서 단지 못 된노릇만 배우면 그것이 될 말이냐?」

너의들은 어른과 달다는 것을 알어야 된다。어른이 하는 노릇은 너의들이 어른된후에 배워도 넉넉하다。어른도 술 담배를 일삼는 것은 조치는 안치만은 너의들에게는 더욱이 해롭고 나쁘다。또 어른들을 본위로한 극장에 너의들이 갓댓자 사람만 버리기 쉬웁다。그러니까 가지말라고 금하고 말리는 것이아니냐? 너의들에게 조흔 것이라면 왜 못 하게하겟니?



라디오

十五日(日曜)

◇午後六時 連續兒童劇 「의지업는애」 마로—原作 鄭英顯色(二) 新興童人會 指揮 鄭英徽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中擧 三、羽調栄、四、編 郭山紅玉 洋琴 丁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피아노三重奏 曲B長調트리오作品十一(베—토벤作曲) 피아노 李興烈 빠이올린 洪蘭坡 첼로 金泰?

◇同八時五〇分 十杖歌外 一、十杖歌 二、挽歌 三、小春香歌 四、長고조 全光泰

◇同九時 映畵이야기 「新婚의주인」 李承雨 鄭開東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滿洲國으로부터) 新京二重放送開始記念招聘支那劇 哈爾濱道外華樂舞臺로부터中繼—哈爾濱으로부터—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 産業뉴—스

◇同七時三〇分 째즈

◇同七時五五分 (東)落語

◇同八時五五分 (東)俗曲

◇同九時一〇分 漫才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滿洲로부터

十六日(月曜)

◇午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어린이의遊戯…宋一九編曲 二、愉快한牛乳配達夫…同 三、꿈에서잡힌人形…오래스레作曲 四、沙漠의隊商…宋一九編曲 五、그리운켄터키—의집…포스터—作曲 宋一九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許然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米穀統制에對하야 總督府事務官 樊元秀

◇同八時 성주푸리外 吳太石

◇同八時三〇分 音律 一、合館風流 二、三絃도도리 大笒 鷄琴 細笛 杖鼓 韓奉石 金欒 李點龍 金申 廉秋岡

◇同九時 野談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通俗講話

◇午後〇時五分(名)만도링五重奏

◇同二時(東) 家庭講座

◇同六時管絃樂맨돌린五重과獨奏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同八時三〇分(東) 箏曲

◇同八時五〇分(東) 歌舞物語

十七日(火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高里天倫」 白岳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寶石이야기」同德高普 孫貞順

◇六時 童話「뜩읍랑은게집애」 田榮澤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講演「精神衛生에對하야」 醫專敎授 金興濟

◇同八時 流行歌 金永澤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不須嚬 二、唱劇調……春香歌中、夢中歌 鼓手 丁元燮 曹鶴

◇九時(東) 管絃樂(合唱付) 京都音樂家協會으로부터中繼 京大交響樂團 合唱大阪音樂學校 指揮 에마누엘·메테르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東) 모던小唄

◇同二時 趣味講演

◇同六時 兒童과 對話唱歌

◇同六時二五分 (長)·靑年時間

◇午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講談

◇同八時三〇分

◇同八時四〇分 詩吟

◇同九時 (京) 管絃樂

★曆★

十一月十六日(月) 陰己亥十月大(初三日) 壬寅·金·心·平

●裁衣動土上樑未時開市納財에 官吉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ウテナ 雪印 バニシングクリーム

우테나 雪印 바니싱 크림

皮膚의整美에·粉白粉下로

面刀後에·最適의整肌料

우테나雪印의평장한効果는……

★끈적이지안코、기름끼잇고、산뜻한感觸으로살결에 녹아드러、皮膚에彈力과麗艶을給與하야、皮下에沈着하는惡質의色素를解消하야、肌理를가늘게培養하야、잔주름弛緩도이것으로아름답게업서집니다。

★슬슬녹아들어가듯均一한 皮脂가되여氣分조케 살결에퍼저、外氣의寒冷 其他의刺戟이되는 影響을保護하고 粉水白粉下로서 손쉬운 淡化粧의 効果를 드러냅니다。

★이러케均一한皮膜이살결을一面으로써버림으로外氣의刺戟을바더도 塵埃其他異物이 毛孔을막고 여드름、부름의原因이됨을 豫防하야언제나 淸純한素肌美를만듬니다。

★또 面刀는皮膚를 껄죽껄죽하게 거칠게 하는것이나 우테나바니싱을 넉넉하게발느고 물을석거毛根에문지르면、面刀한곳도 부드러워지고 언제든지빤질빤질합니다。

★또는 우테나바니싱은 油脂에適한 구리세링을 含有치안엇슴으로 化粧濃斑、皮膚를것게하는 렴려업고 또香料에不純物을 含有치안엇슴으로 여드름、부름가튼副作用을이르키지안음니다。

無脂肪性임으로特히脂肪性의분에게好適합니다

산뜻하게먹고 맑은얼골을만드는 鮮麗한八色粉!!

粒子가 고흠으로 거친살을막고、白粉먹음이조코、色素가均等하게 配合되어잇슴으로 白粉끼롬의 렴려가업서 산뜻하게 됩니다。

自己의 살결에適當한色味를 選擇하면가장 個性美를살리는 化粧이되고 우테나獨特한 高價의香料가 配合되어잇슴으로 麗雅하고노—블한 香氣를發散한 表情美에色彩를줍니다。

雪印을皮下에발너살먹고오래가는우테나粉을 배만저生生하게되는 表情化粧을試驗하시오

ウテナ化粧品 本舖·東京 久保政吉商店

白色 肌色 濃色 健康色 내추럴一號 오—클二號 뿌룬 三

定價 三十二錢 五十三錢

ウテナ粉白粉

11.11—6.1

作權移動等이 主因 全北에 爭議激增
지난十月末現在 一千二百件
벌서 昨年件數를 超過

【全州】 추수기가 끗나자 소작쟁의는 의연 각군에 풍주하고 잇다

지난 시월 삼십일까지 도내 십사군에서 발생된 쟁의건수는 일천이백삼십삼건으로 그중에 제일 우심한 곳이 김제군(金堤郡) 이백이십삼건에 정읍, 백록 십사건으로금산군(錦山郡)한건이 제일적다하며 이상쟁의발생원인을조사한바를보면 지주소작인간에 작권이동(作權移動)과 소작료감면(小作料減免)등의문제라하며 작년도열여간동기간일천이백건에비하면 아직도 금번은 일개월이나 압헤남어잇슴에도 불구하고 삼십삼건이나 더늘엇다는데 목하 선례인에출장소를 둔모농장주로부터는 각소작인에게 긔일내 도조를납부치안흐면 작권을 이동한다는통첩까지발한사실이잇서 이문제의 귀결도 매우 주목하는중 경찰당국에서도 각방면에서 엄중한 단속을 하는중이라고한다

朴泰俊作曲發表 音樂會大盛況

【平壤】 숭실전문학교음악부(崇實音樂部)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십사일오후 넷시부터 숭전본관강당(崇專本館講堂)에서 개최되엿든 박태준(朴泰俊)씨작곡발표 음악대회는 만장의청중을 감격식히고 열시경에 산회햇다

勉靑雄辯大會 本社支局後援

【元山】 원산지방 면려청년회련합회(元山地方勉靑聯合會)지육부주최 본사원산지국후원으로 이달십칠일 오후칠시부터 원산석우동례배당(石隅洞禮拜堂)에서 면려청년웅변대회(勉勵靑年雄辯大會)를개최하기로되엿는데 면청제씨는 만이참가해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元山普惠女子舘 突然閉鎖決議
近三百名生徒는轉校시키는中
元山敎育界에大衝動

【元山】 매년천여명의 미취학아동을 생산하는 한심한 원산초등교육계에잇서서 무산아동의교육기관으로서 자타가 공인하고잇는 원산보혜녀자관(普惠女子館)에서는 어번에 돌연 주야학생이백삼십여명을 금번신이월안으로 다른학교로 전교를 권하는 일방 사회사업으로서 원산에 제일적절한것이 무엇일까를 연구중이라고하는데 이와가티 무산아동의 교육기관으로서 중대한역할을하든 보혜녀자관이 방향을 전환하야 사회사업에 치중하기로 그관리사회(理事會)에서 결정하얏다는 소식에 일반의시선을 보혜녀자관의 태도와 그방향전환의 결과로 집중하고잇다

십여년간이나 원산무산부녀의 몽매를타파하야 나려오든 보혜녀자관이 갑작이 입때까지 주력하든 교육사업을 일단중지하고 새로운 사회사업을 영위키위하야 주야학생을 전교(轉校)식히고잇슴에대하야 그경과를들어보면 다음과갓다

보혜녀자관의 본래목적을 『셋틀멘트』라고하는데 남감리선교본부(南監理宣敎本部)로부터 매년 근사천원도을 보조바더 사회사업을 하기로된것으로 그관

社會側과도沒交涉 理解키難한處事
府內某有志談

근삼백명 무산부녀를 가르키다가 갑작히 페문한다면 그성질에잇서 피교육자부형에게나 일반사회에나 그에대한 협의를한다는것이 온당한처사라 압니다 만은 보혜녀자관에서는 그러한 순서를 밟지아헛다는것이 일종 불쾌를 자어내며 지금그관에서 배우는생도는 대개가 빈곤자의 부녀자라는말을 들엇는데 지금 아무런 대치계획도 업시 다른곳으로 전교식히는것은 리해키 어려운바이외다。무산자의 교육 그것이 〃쎄틀멘트〃인데 특수자를가르키는 가사과등은 그대로두면서 수백명무산자의 교육기관을 폐쇄하기로한것은 제삼자인 나로서는 그본의를 알기에 곤난합니다。운운

理事會 梁在順氏談

원산의 녀자교육기관은 남자처럼 대부족은 아닌형편인대 보혜녀자관이 엇기때문에 그저정규의 보통학교에도 들어갈 아이들도 모혀오게되여 일종국민교육기관인듯한 감을밧게함은 그관본래의 목적에 어그러지는바가 만키에 좀더 사회사업다운방면으로 인도하거 위하야 주야학을 폐지하기로 되것입니다 교육사업을 아주중지한것이 아니고 금후편물을보아 사회사업적색채가 농후한것 즉로동부인의단기강습가튼것은 조흘잇슬것이며 대안아직 세우지안햇스나 대개 탁아소(託兒所)산원(産院)등을생각하고 잇습니다운운

同館 金成萬氏談

금번안으로 처리하기로되여벌서 약사분지일은 다른학교에전교시켯고 남어지도 다전교식힐방침입니다 전교식힌후에는 우선긔존한가사과(家事科)등을 일층충실하는동시 다른것도지금후구체적플랜을 세우고잇스니까 몰원에서 설립되면 그안에따라 명년부터는 새사업을 할라고합니다 운운

〃모히〃患者檢擧코 藥品出處調査

【全州】 게이육마치고 사회풍속을 문란케하는 마약취체(痲藥取締)가최근당국으로부터 엄중하여저서 점차로 〃모히〃환자가 업서지는 요지음 전주부내에는 뜻하지도 안흔도히밀매 혐의자가 잇서서 상례(三禮) 전주(全州)기타각군에 어디던지 산재하야잇는 모히환자남녀 십여명을 검거하고 매입한증거여부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목하 밀수의 혐의를 밧고잇는자는 경상도함양군(咸陽郡)에 본적을두고 주소부정한 김종순(金鍾順)으로 그는 그만한 『도락구』에다 병원구와 약품등을 다어가지고 이동식병원을 무면허로 경영하면서 중국방면에 무련락을두고모히약제를 밀수따매한혐의가 잇다 하야 방금전주서에서 이에대한 취조를밧고잇는중이라고 한다

平壤府의市區計畫 船橋里부터着手
完成은昭和三十年

【平壤】 평양부의 시가지계획은 대구(大邱)의 네도시의 시가지계획과가티 총독부의 시가지계획위원회를통과하여 명년도에 고시된후 즉시 실행에착수할예정인데 평양에서 구획정리를시행할거역은 부동강류역과 련병장(練兵場)을 제외한 신편입지역인데 즉

西城里 西城里 仁興里 上興里 明山里 栗里 平川里 衣岩里 東大院里 將進里 貞栢里 新陽里 土城里 船橋里

등부내의 외곽지대(外廓地帶)이다 우의 각지대에는 지주로 구획정리조합(區劃整理組合)을조직하고 부의 시가지계획계의지도도 미테서 예정의 도로망에따라 지역의 정리가 시행될것이로 이것의 완성은 소화삼십년까지 걸닐 예정이다 그런데 명년도에 시행될 지역은 선교리방면으로 이것이실시될때에따라 토지경긔를 구가튼 지주에게는 큰 충동을 일으키게 될것으로 큰 주목거리가되고잇다

地方人事

▲林良作氏(咸興商工會議所會頭) 新任人事次本報咸興支局來訪
▲信田榮一郞氏(前咸興商工會議所會頭) 離任人事次同上
▲李正燮氏(前東一銀行咸興支店長) 轉任人事次同上
▲金時煥氏(元山府議) 轉任人事次同上

鍾城에도初雪

【鍾城】 지난십이일오후 오시경부터 귀설은 일대에는 금번의첫눈이며 부어 갑작히온세거를 일우엇고 도괴후도 불변하여 영하오도로 저하하엿다

寫眞…(上)白頭山探險映畫大會一場面 (下)朴泰俊作曲發表會 (平壤)

江界邑民의宿願 架橋促進을陳情
代表三名道廳을訪問

【新義州】 평북강계(江界)군민의 요망인 강계읍과 강계역(驛)을 련락식힐 가교(架橋)문제는 래년도예산편성긔를 압두고 군민이 맹렬한 운동을 하야오든바 지난 십삼일에는 손(孫)강계읍장과 류(劉) 김(金)도회의원이 도 삼목(杉木)토목과장을 방문하고 급설진정을하얏는데 도에서도 산업개발상 가교의 필요를 늣기어 래년도에는 실현될모양인바 총공사비 이십만원가운데 삼분지일인 칠만원은 읍에서 기채(起債)하야 공사일부에 기부하기로되엿다 하다

宅地料를七割引上 六十餘住民憤慨
一般은歸結을注目

【會寧】 회령읍오산동두림조일백사십팔번지(會寧邑鰲山洞豆林村百四十八番地)의소재인 읍내대정통(大正通)에 거주하는 근등종삼랑(近藤宗三郞)과 회령역전에 거주하는 중곡대치랑(中谷大治郞)두사람소유에 편한 이천평에 갓가운 주택지에는 주민륙십여호가 오래전부터 거주하면서 택지대부료는 매평에삼전식을 지불하여오든바 지주측에서는돌연 지난시월이십륙일부로 지가의등귀등 여러가지리유로 종래에대부료 평당삼전을 시월부터 평당오전으로 인상개정한다는통지를 발송하고 한편으로 토지임대차계약(土地賃貸借契約)를 다시하자하매 주민일반은 지주의무리한행을 분개하며 이번의인상은 두림촌일부에 사는륙십여호주민에게뿐 아니라 전회령주민에게 영향이밋츠리라고 회령사회에서는 사건진전을주목중이라한다

光州北町에火災 三棟을全燒

【光州】 광주부북정(光州府北町)일백십팔번지리화삼(李華三)씨집에서 십삼일밤한시사십분경에 발화하야 일동삼동을 전소하고 때마침추수긔임으로 벼를 창고에 둔것이 전소되얏다는데 소방수가 출동하야 진화하기는 동세시오십분이엿는바 손해는약륙백원가량이며 발화원인은 변소에 재를버린것이 벽에연소되야 그와가티 되얏다하며 그집주인인 리화삼씨는 화상까지당하얏다한다

元山
勉勵靑年雄辯大會

▲時日 十一月十七日午後七時
▲場所 石隅洞禮拜堂
◇主催 元山勉靑聯合會智育部
◇後援 朝鮮日報元山支局

知事巡視를機會 築港、鐵道等陳情
郡守以下有志連署로

【盈德】 경북영덕군에서는 지방발전과 이재민구제책에 유의하여오든바 지난십삼일오후일시경에 상룡본도지사(上瀧本道知事)의 래영순시를긔회로 권수(權守)문, 권량도회의원(文, 權兩道會議員)이 선두로 관민유지다수출영과 청내에서 접견을맛치고 이어서 좌긔각항을 진정하엿는바 동지사일행은 동이시에 순시를 마치고 포항으로향하엿다고한다

◇陳情要項
一、砂防工事實施에關한件
一、鐵道敷設促進에關한件(慶北線、東海岸線)
一、上水道設置에關한件(盈德、江口)
一、市街地下水道工事施行의件
一、普通學校學年延長의件(柄谷知品兩校)
一、堤防復舊工事急施의件(五十川、松川、德谷川堤防)
一、林産道路開設의件(寧海서 梅村 新里 栢書間)(江口 玉溪間)
一、等外道路昇格의件(陶谷、丑山間)(寧海、英陽間)
一、港灣築港工事의件 1(江口港浚渫並防波堤延長工事) 2南浦港浚渫工事 3丑山港護岸工事 4大津港築港工事
一、等外道路構造物補助의件(盈德 南浦間)

講演映畫밤盛況
本報平壤支局主催

【平壤】 본사평양지국주최백두산탐험강연과 영화의밤은 십삼일간 오후일곱시삼십분부터 백선행긔념관(白善行記念館)에서 성대히 개최되엿섯다. 제일일 제이일량일간에 살도하는관중으로 장내는 초만원을 일우워 입추의여지가업섯다 본사주필 서춘(徐椿)씨의 탐험강연은 만장한사천여관중으로 하여금 감동과 흥분을 일으키게햇고 영화도 백두성산의 전모를 낫낫치보혀주워서 감사와 만족의념을 갓게한후 열시경산회햇다

免職을悲觀? 前巡査飮毒自殺

【咸興】 지난십이일 오전여덜시쯤 부내중앙정이정목(中央町)에 사는 원〇〇경찰서순사 김긔형 金基衡(二八)이 독약을먹고 신음하는것을 집사람이 발견하고 곳도립의원에 입원시켜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결국그날오후 여덜시쯤되야 절명되엿다 먹은 독약은 아편(阿片)이라고하며 자살원인은 직무에 겨오렷다느리유로서 [illegible] 면직(免職)처분을밧고 그것을 비관한것인듯하다고한다

愛慾의彼岸 【151】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아버지를 건저? 누가?』
종호는 혜련의 말을 비웃는다.
『오빠하고 나하고。』
『흥，그러다 얭，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될줄아니? 아버지가 지금 당신이 일생에 심으신 추수를 하시는 판에─안 되지、안 돼 기껏해야 네나 내나 효자 효녀 소리나 들어볼까。아버지는 망하는데 자식 놈이서 효자효녀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꼴이 더 말이아니다。뻔수만잇스면 우리가 망년이가 되어버리면 아버지 창피하신 모양이 덜 눈에 띄오는 말이다。출세 생각을 해보아、혜련아 하나님 예수님 모두 틀버부러서 사십년을 애를 쓰시고도 못 건진아버지를 네나 내가? 어림도 업지。아、하、또 놀려나 나가보께』
하고 종호는 일어난다。
『오빠』
하고 혜련이자 종호를 붓든다
『왜? 아、하』
하고 종호는 하품을 하고 켜지게를 켜고는 누이가 붓드는대로 털석 주저안는다。
『오빠、아짜、남더러 너 죽는것 생각해 보앗니 그리셧지요?』
『그래?』
종호는 놀라는듯 혜련을 바라본다。
『그말 왜 무럿수?』
『아니야。별 생각 업서』
가하고는 잠간 주저하다
『어쩌다가 그러케 말이 나갓서』
하고 우서버린다。
『아니 말을 해요─그런 말을 왜 무럿니?』
『사람이란 언제나 한번은 죽는것이니깐으로 혹시나 너도그런 생각을 해보앗느냐 말이야 오늘 죽을찌 내일 죽을찌 모르는 목숨이어든、그런데도 그집 모르고서 사람들은─어려서은 무리들은 말야─천변만변 살려니、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노 저만은 언제까지나 죽지안코 살려니、이런케 생각들을 한나봐야。만일 저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찌 모르는 목숨인줄을 깨닷는 날이면 세상에 악한 일이 구십퍼센트는 업서질것이란 말이다。아버지도 안그러시냐。인제 두귀미처 허엿스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는 목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러케 돈에 상선도 아니하실것이오 또 묘험이지 무일이지 한 게집에헌테 반해서 저 꼴도 안되실것아니나말야。그저 그래서 한 소리야』
하고 종호는 제가 한 말이 혜련의 마음에 준 영향을 소명시키라고 애를 쓴다。
『오빠。그래도 난 그러케 안들엇서?』
『그럼 어떠케 들엇니?』
『난오빠말을 이러케들엇서─너는 인제 죽을때가 되엇다。네가 인제더 살아서 무얼하니 그러니깐 죽을생각이나해라─이러케。그런뜻 아니오 오빠?』
종호는 참 대답이 업시 다만 혜련의 충명을 정탄하고 잇슬뿐이엇다。
『그러치오、오빠?』
혜련은다진다。
종호는 말이업다。
『오빠、나도벌서 그런생각을하는지가 오래서。아버지가 저런 아버지신줄을 알던날─아아내가왜 그때에 안죽엇슬까』
혜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도모지 미들사람업는 세상이다』
하고 종호는 갑작이 흥분되는드시、
『누구를 밋니? 다만 한사람이라도、단하로라도、나만을사랑하고 생각하고 밋고 내게다가 몸과 마음을 다 던저주는 사람을 어데보앗스면 금시에 죽어도한이 업슬테야。정말 참된사람을 정말 오만큼도 꾸밈도 속임도 업고 그리고 사욕도 업는 쫑은한 따뜻한 마음을가진 사람과 단하로만 가리 해보터라도 이 세상에 낫던 보람은 한것이란말이다。그러치만 혜련아 세상에 그런사람이 어디잇서? 업서 업다。적어도 여조선천지에는 업단말이다。부모자식 사이、남편 안해 사이는말할것도업고 속사자하고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들어서면 금시에 딴생각이 딸이다。나보러 그런것을 날볼 어떠케 원망하니?』

國産品の第一位
ニッポンスケート
モンブランスケート
NIPPON SKATE
カタログ進呈
京城府本町一 京城運動具商會

조흔家庭工業
第一 ... 第二 資本金參拾萬圓
內外貿易株式會社

韓氏家四代傳秘方劑
效力偉大・萬病退治
韓氏膏藥

우리用豆送風機
凡力絶大 體裁優美
五金商會
大阪市西區江戶堀北之町

眼鏡은東亞醫院
專門 檢眼
眼科.齒科
京城 電話光化門二四三六番 鐘路

毛生藥 후미나인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全國藥店에잇슴)
發賣元 東京藥院

平壤府水玉里(電話二〇六九番)
水玉產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校舍大擴張◇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校舍大擴張◇
第四回補缺生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マツミポマード 香油

ミシン界王プロトス
品質堅・優美極
東京ローラス會社 全朝鮮總代理店
大昌ミシン商會
全北裡里
電話278番
振替京城24638番

團成社
十三日부터 四日間公開
情熱の不知火
두얼골
華麗한巴里

水標町 中央館
十一月十五日부터三日間大公開
巨彈映畫豪華選
每日三回晝夜公演
女の顏役
엉클톰스케빙
無敵亂鬪王 解決篇
天保片割れ我

第一劇場
離婚騷動
貞操城
이子息、뉘子息

東洋劇場